

대림 제 4 주일

기도서	223 면(C해)
제1독서 : 미 가	5, 1-4a
제2독서 : 히 브	10, 5-10
복 음 : 루 가	1, 39-45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루가 1, 45).

□ 1985년 성탄메시지



빛으로 오신 주님

천애하는 전주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여러분의 본당과 우리 한국 사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탄이 고달프고 깨마른 현세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위안을 주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보다 거룩하고 보람되게 지낼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요한 1, 48 : 8, 12 : 9, 5)이라는 점입니다. 그 분은 세상의 어둠을 없애고 하느님의 빛으로(시편 36, 9 : 1 디오 6, 16)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빛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성스럽고 보람되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예수 성탄은 교회의 다른 모든 축제가 그렇듯이 겉으로 화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잘 지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교구내 모든 신자들이 어둠을 밝히려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받아 드리며 더 나아가 그 빛을 이 교장 방방곡곡에까지 비추는 빛의 전달자가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굳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마태오 5, 14)이며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마태오 5, 16)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에페 5, 8)이고 “대낮의 자녀”(데살 5, 5)로 불리웠다면 우리들의 모든 행실이 참으로 “빛의 자녀다워야”(에페 5, 8)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빛의 자녀들은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야...”(로마 13, 13)합니다.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반성해 봅시다. 우리들은 과연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드리고 그분의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빛의 전달자 구실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이 물음에 대한 마음의 답을 얻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섭섭하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꾸만 그분의 빛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안에는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암흑세력의 소산인 거짓과 사기, 불신풍조, 폭력과 윤리적 퇴보, 패락주의 그리고 권력의 남용 등이 점점 그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파탄, 계층간의 대립과 정치적 극한 투쟁, 정신문화 유산의 쇠퇴와 전통의 단절 등이며 국가의 안위마저 염려스럽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우리는 여러차례 마음아픈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크게 각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해지고 밝혀져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그러한 의무와 권리를 분명하게 밝히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세태와 견진성사를 받음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도적의 사명을 받았으니만큼 하느님의 구원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각자 자기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정신에 맞게 변혁시키는데 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회법 225조).

우리 한국에는 아직 그리스도 신자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분발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한다면 이 나라, 이 사회는 좀더 밝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하느님의 빛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그 밝은 빛을 받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 갈 것을 새롭게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 그 빛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200주년을 “이 땅에 빛을”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념한 것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사회에 모셔 드리고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교구는 차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하며 그 빛을 새롭게 밝힐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밝히려는 주님의 높은 뜻이 계시고 명령이 지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당신의 빛을 “밝히오리다” 하면서 8만 신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더욱 힘차게 매진합니다.

우리 교구 50주년이 우리가 염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 구유앞에서 열심히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금년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때가 되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5년 성탄절에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축) 예수 성탄 대축일

성탄을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과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청 자 당 제 과

*선물용 케일 전문 *공장 직영 주문 배달

대표 이 성 연(요셉)

전동성당 (구)성모병원 건너편

☎ 6-3304

※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십시일반의 아름다운 전통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중고등학생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점심시간에 「한 술 밥」을 얻어 먹던 추억꺼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려 있는 문을 밀치고 들어선 동네 사람에게 식구들이 먹고 있는 밥을 아무 스스럼없이 「한 술」씩 모아 한 그릇의 밥을 나누어 먹은 적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일러 십시일반이라 하던가? 그래서인지, 소위 거지도 “한 술 줍쇼”라고 말한다. 두 술도 아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열의 한 술 밥이 한 그릇 뿐분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모아 돌보아 주면 한 사람을 손쉽게 구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적은 힘이지만 그것들이 모아야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 함께 사는 우리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불우 이웃을 돕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교회는 신자들에게 많은 날들을 금육(禁肉, 소제)하고, 또 어떤 날에는 하루 한 끼 금식(禁食, 대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에 이러한 규정은 대폭 완화되었다. 그리고 대신해서 자선에 더욱 관심과 정성을 다하도록 가르친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난해부터 대림 제2주일을 「자선의 날」로 정했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적은 데에 문제가 있다.

고통받는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다. 성탄절을 맞아 오랫동안 적조했던 친지들과 카드를 나누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나눔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자. 해외 선교사를 돕자는 교구의 뜻도 다시 생각해 보자. 연하장도 좋지만, 지역만리의 외국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돕는 정성의 표시에도 게을리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일이 즐거운 성탄을 준비하는 일이다.

순 정 이 산 책



컴퓨터 상담

양약, 한약, 생약, 조제

교우 여러분에게 성탄인사 드립니다

근 화 약 국

약 사 이 영 수(도미니카)

☎ 2-2618

효자동성당 입구(서부시장 앞)

교 구 소 식

주교님 성탄메시지 방송프로 안내

라디오 방송 전주 KBS-24일·25일 각 뉴스시간
 남원 KBS-24일 오후 9시 5분~45분사이
 군산 KBS-25일 오전 8시 20분~50분사이
 이리 CBS-24일 아침 7시 5분

T.V 방송 전주 KBS 제 1 T.V-25일 오전 7시 30분
 전주 KBS 제 2 T.V-24일 오전 10시 50분

※ 각 본당 사무장님께 알림 : 86년 1월 5일자 숲정이 4면 각 본당 소식을 12월 26일까지 편집실로 보내주십시오. (29일자 소식은 24일까지)

1. 주교님 성탄절 일정
 24일 밤(천야미사) 밤 12시. -중앙천주교회
 25일 오전 10시미사-덕진천주교회. 25일 오후 3시-고창 동혜원
2. 셸 연구발표회 : 85. 12. 27(금) 오전 10시-오후 5시
 대상-각 본당 중·고등학생, 장소-가톨릭센터 3층
 참가비-1,500원, 준비물-미사·필기도구
3. 성화를 위한 특별 성령세미나 개최
 일지-86년 1월 2일(목)9시~1월 3일(금) 19시까지, 장소-전동성당
 지도-송광섭 신부(전국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서울대학교 사목국장)
 참가비-3천원, 가르침 및 봉사자-서울대학교 오순절 봉사회
4. 전주교구 중·고지도자 2대 정기총회 : 86년 1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중·고지도자, 회비-2천원
5. 동산천주교회 주소·전화번호 변경
 완주군 조촌읍 동산리 708-21, 전화 76-1289
6. 금암천주교회 전화번호 : 사제관·사무실 3-1653, 수녀원 76-0961
 금마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 : 사제관 53-7187, 사무실 53-6244, 수녀원 53-7157
 여산천주교회 전화번호 변경 : 53-5016

※ 축! 영명
 성 스테파노 첫순교자 축일(26일) : 김치삼, 김환철, 나춘성 신부님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27일) :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종복 신부님

※ 가정기도 시편 : 15장, 독서 : 로마서 8, 31-39. 복음 : 루가 2, 1~20

♣ **잡 간!**

오늘은 선교사 후원을 위한 헌금의 날
 본 교구에서는 해외 선교사로 페루에 세분의 사제를 파견했다(정승현 신부, 김윤섭 신부, 방의성 신부). 오늘은 그분들의 활동과 생활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주일이다.
 멀리 타국에서 하느님 사명을 펴기 위해 고생하시는 세분의 신부님을 위해 우리 모두 정성을 모두자.
 그분들의 훌륭한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드리자. 오늘의 헌금은 교구에 모아져 그분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다같이 동참하자.

요십이 (446) 김병오



가톨릭성가 카세트

가톨릭 성가집을 전례시기에 따라 선별 수록한 카세트가 나왔습니다.

전체 19개

가격 : 1개당-1,800원

※ 86년도 성인 축일표 달력
 가격 : 1,000원

취급처-성바오로서원
 ③ 3398

고 려 한 의 원

침구파·내과·부인과·신경정신과

원장 백 종 필(안드레아)
 김 의 천(테레사)

군산시 장미동 1의22 전북은행 군산지점 옆
 ☎ 2-3972

3개월 수료 자격취득 보장
 개인지도, V.T.R 교육
 취업보장, 개업 알선
 미용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으신분 상담 환영

현대 미용학원

중앙성당 건너편
 코아백화점 앞
 김 금 순(테레사)

비디오 특수 촬영

최신형 전자비디오 촬영기 설치
 결혼·회갑·각종행사 등
 마이크업프, 금성, 삼성
 가전제품 공장도가 판매

백운전자

☎ 3-0231
 전주 태평동지점
 (전북은행 옆)

전주시 서노송동 639

주임신부 성 민 호
보좌신부 김 희 남
사목회장 김 인 협

중 앙 천 주 교 회

사 계 관 ⑤ 1 7 1 3

수 녀 원 ⑤ 1 7 1 2

사 무 실 ⑤ 1 7 1 1

☆ 미사시간

주일 : 새벽미사-6시, 학생미사-오전 9시,
공식미사-오전 10시30분, 아동미사-오후3시
저녁미사-오후 7시
평일 : 월-오전 6시, 화·수·목-오전 6시·오후 7시
금-오전 10시30분(어머니미사), 오후 7시
토-오전 6시·오후 7시(특전미사)

☆ 반미사 안내 : 27일(금) 오후 8시
9반-엄배운(☎9426)

본 당 소 식

※ 환영! 어제 영세하신 교우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미사-오늘 공식미사

- 성탄절 행사안내
24일 : 오후 6시-초·중·고·청년 발표회 및 복권놀이
11시30분-성탄의 밤 전례(주유안치)
25일 : 오전 0시-자정미사(주교님 집전)
9시-학생미사, 10시30분-공식미사
오후 3시-어린이미사, 7시-청년미사
- 사목협의회 정기총회 : 28일(토) 오후 4시
참석범위-사도회 임원, 구역장, 제단체장
회의내용-회장단 선출, 예·결산심의, 회칙개정
- 유아세례 : 27일(금) 어머니미사 후
10시까지 접수 바람
- 성령기도회(세미나 수료자) : 26일(목) 오후 7시
미사후
- 애령회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금주모임 : 상지회-25일(수)
울뜨레아-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방지거 삼회-다음주일 오후 2시
- 86년도 본당달력(축일표) 판매 : 사무실에서 구입
바람, 1가정에 1부씩은 구입하세요(1부-1천원)
- 금주축일 : 25일-예수성탄 대축일
26일-성스토페노 첫순교자축일
27일-성요한 사도 복음사가축일
28일-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축일
- 감사합니다 : 지하 소성당 헌금

익명-28만원, 박야무-5천원, 안병문-5만원,
익명-3만원, 황성주-2만원

10. 특별헌금 : 박마리아-1만원, 박주리아-6만5천원
김디모테오-2만원
- 지난주 봉헌금 : 860,260원 교무금 : 12,495,100원

오늘의 전례

기도서
223 면

제 1 독서 : 미가 5장 1~4절 (1546면)

총 계 송 : (후렴)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
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
나리이다.

1.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들어주소서 케루빔 위에 좌
정하시는 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권능을
펼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후렴)
2. 만군의 주 하느님 돌아오소서 하늘로서 굽어보사
살펴주소서, 비오니 포도밭을 찾아주소서 지켜주소
서, 당신의 오른손이 짊어주신 즐거움 당신위에 실
히 해주신 그 가지를 지켜주소서(후렴)
3. 당신의 오른손 쪽 사나이 위에는 당신 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는 당신의 손이 있게 하소서 다
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리니 우리를 살려주
소서, 당신 이름을 기리오리다(후렴)

제 2 독서 : 히브리서 10장 5~10절 (432면)

복 음 : 루가복음 1장 39절~45절 (104면)

영성체송 : 보라, 동정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다음주 미사 해설자

성탄미사	다음주미사
특전미사 : 임주택(바오로)	이영희(테레사)
새벽미사 : <자정미사>	박준경(프란치스코)
학생미사 : 김지아(가타리나)	이영식(로벨도)
공식미사 : 김완준(안토니오)	이근배(세시리아)
저녁미사 : 배창수(도마)	김이나(안나)

♣ 중 앙 성 당 교 우 의 집

가 나 약 국

전주우체국 앞

전화 2-56652

활 의 욕(파로)

최신 장비 시설

스타 사장

칼라·흑백 고급사진

비디오 촬영

☎ 2-5094

구역전오거리 남쪽

장 남 수(바오로)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⑤ 3 6 6 8

자택 ⑤ 8 1 2 0

□이전 개업

대 건 회 관

연희석 안비

단체손님 환영

한성여관 뒷편,

문산부인과 앞

☎ ⑦566 · ③3170

김한영(안토니오)

하정희(엘리사벳)